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계시와 하나님 자신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2부 '현대신학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중 '계시와 하나님 자신', 약 107~111쪽 (본문 쪽 표시 108~111 기준)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앞 장들에서 다룬 자유주의 계시론(이성·역사·감정)을 정리합니다. 셋은 따로 노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자율적 생각 아래 두는' 하나의 태도가 세 얼굴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어서 20세기 중반에 유행한 구호 “하나님은 정보가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신다”를 다룹니다. 프레임은 인간의 경험과 성경의 '계시' 용례를 근거로 이 구호를 반박합니다. 그다음 가장 진지한 형태인 바르트의 주장, 곧 “계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를 검토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점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성경 말씀의 권위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 절별 정리

📜 1. 세 관점으로 본 자유주의 계시론, 그리고 공통 뿌리

프레임은 앞 장들에서 자유주의 계시론을 세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성은 규범적 관점, 역사는 상황적 관점, 감정은 실존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그가 '관점'이라는 말을 고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접근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을 인간의 자율적 사고에 종속시키는 한 태도의 세 측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프레임은 이 견해들이 긍정하는 내용은 대체로 옳고, 부정하는 내용이 틀렸다고 평가합니다. 이성으로 종교 문제를 따지는 것, 계시가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두는 것,

'자율'로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해석학, 정경, 성경의 정확성과 목적 같은 주제는 뒤로 미룹니다. 이 주제들은 일반계시보다 기록된 계시에 관한 문제이고, 자유주의와 정통주의가 똑같이 관심을 가져 온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1. 이성·역사·감정은 세 '관점'이지 세 이론이 아니다
2. 공통 뿌리는 말씀을 자율적 사고 아래 두는 것
3. 긍정한 것은 대체로 옳고, 부정한 것이 틀렸다
4. 문제는 이성·역사·감정이 아니라 '자율'
5. 정경·해석학 등은 기록된 계시를 다룰 때 논의

📜 2. "정보가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구호에 대한 반박

20세기 중반 신정통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구호가 유행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말로, 특히 사실을 진술하는 문장으로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깎아내리는 데 있었습니다. 프레임은 먼저 사람 사이의 경험으로 답합니다. 우리는 자기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줌으로써 자신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보를 말할 때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경으로 답합니다. 신약에서 '계시하다'와 '계시'가 쓰인 대부분의 구절은 계시를 하나님이 내용을 전달하시는 일로 그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주시지 않는다거나, 정보 전달은 계시가 아니라는 생각을 성경은 어디서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가장 '인격적인' 계시 사건인 그리스도의 재림조차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에 관한 많은 것을 함께 드러냅니다.

1. 정보 주기와 자기 드러냄은 맞서지 않는다
2. 사람도 자기 정보를 말하며 자신을 드러낸다
3. 신약의 '계시' 용례 대부분이 내용 전달이다
4. 재림은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에 관한 것을 함께 드러낸다
5. 그래서 이 구호는 인격적 말씀 모델을 반박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은밀한 일(꿈과 해석)을 '드러내심' — 내용을 알리는 계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마태복음 11:27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계시함' — 아는 지식을 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3:15

생각이 다른 부분을 하나님이 '나타내심' — 깨달음을 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로마서 16:25

감추어졌던 '신비의 계시' — 복음의 내용이 알려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고린도전서 14:6

예배에서 '계시'가 지식·가르침과 나란히 말로 전달됨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린도전서 14:26

모일 때 각 사람이 가져오는 '계시' — 말로 나누는 내용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갈라디아서 1:12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온 것 — 메시지

>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2:2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감 — 구체적 지시를 받음

>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17

'지혜와 계시의 영'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심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3:3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심 — 내용 전달

>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요한계시록 1:1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13

재림을 '계시'(나타나심)라 부름 — 인격과 정보가 함께 드러남

>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 3. 가장 진지한 형태: 바르트의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

프레임은 '계시는 하나님 자신과 같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논의할 만한 형태로 다듬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 대표가 바르트입니다. 바르트도 계시와 이성·역사·주관성의 관계를 계속 다루지만, 그의 핵심은 “계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 있습니다. 바르트는 계시를 삼위일체 구조로 설명합니다. 성부는 계시하시는 분, 성자는 계시 자체, 성령은 그 계시가 사람에게 실제로 닿게 되는 것(계시됨)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정의할 때 성자에게 초점을 둡니다. 바르트는 말씀의 세 형식을 그리스도, 성경, 설교로 구별하고 이를 위아래로 배치합니다. 완전한 의미의 계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령이 그것을 도구로 쓰시는 만큼만 계시라 불릴 수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증언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성령께 잇는 만큼만 계시입니다. 따라서 성경과 설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 바르트의 핵심: 계시 = 예수 그리스도
2. 성부는 계시자, 성자는 계시, 성령은 계시됨
3. 말씀의 세 형식: 그리스도 > 성경 > 설교
4. 성경·설교는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 '된다'
5. 프레임은 이를 진지한 신학적 입장으로 대한다

📜 4. 인정할 것: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프레임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곧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삼위 안에서 성부·성자·성령이 서로 인격적으로 교통하십니다(이 점은 프레임의

요한일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은 신명기에서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까이 있다고 한 말을 가져와 그리스도가 우리 가까이 계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구약에서 여호와께만 돌리던 무릎 꿇음을 받으시는 이름이십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은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주제는 11장에서 더 다룬다고 예고합니다.

1. 하나님은 본성상 말하고 소통하시는 분
2. 삼위 하나님은 서로 인격적으로 교통하신다
3.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른다
4. 구약의 '말씀'·'이름'이 그리스도께 적용된다
5. 육신 되신 말씀은 독특한 권위로 가르치셨다

> **요한복음 1:1**
>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부르는 가장 분명한 구절
>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히브리서 1:1-3**
>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심 —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
>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요한일서 1:1-3**
> 듣고 보고 만진 '생명의 말씀' — 인격이신 말씀
>
>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지라 이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신명기 30:11-14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있다는 원래 본문

[11]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10:6-8

바울이 신명기 구절을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심에 적용

[6]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고린도전서 1:30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 하나님의 말·생각과 같은 계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사야 45:23

모든 무릎이 여호와께 꿇을 것 — 원래 하나님께만 해당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빌립보서 2:10-11

그 구절을 예수의 이름에 적용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7:29

서기관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심 — 말씀이신 분의 권위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 5. 그리스도와 말씀을 묶으면 말씀의 권위는 오히려 올라간다

삼위 하나님이 이성·역사·인간 마음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인격적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도 성경에서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길은 둘입니다. 첫째는 바르트처럼 그리스도만 참계시이고, 말로 된 말씀은 그분을 증언하는 '낮은' 계시라고 보는 길입니다. 둘째는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보는 길입니다. 프레임은 둘째 길을 택합니다. 계시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깎지 않고 오히려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깎아내리면 그리스도의 명예를 깎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불신하거나 불순종하면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로 따지면 말씀이 그리스도 자신보다 '못한' 무엇이라 해도, 권위·신뢰성·능력에서는 조금도 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육신이 되신 말씀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말없는 영향만 받도록 그냥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르치셨고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셨다는 사실이 곧 그분의 말이 최종 권위였다는 뜻입니다.

3. 말씀에 불순종 = 그리스도께 불순종
4. 존재는 구별돼도 권위·신뢰·능력은 같다
5. 성육신하신 말씀은 침묵하지 않고 가르치셨다

> **요한복음 18:37**
> “내 음성을 듣느니라” — 진리를 말로 증언하러 오신 그리스도
>
>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 **마태복음 7:29**
> 그분의 독특한 권위가 그분 말의 독특한 권위로 이어짐
>
>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 **요한복음 6:68**
>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붙어 있음
>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인격적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 6. 바르트의 가치 판단을 거절하되, 그가 확증한 것은 받는다

그래서 프레임은 그리스도를 다른 형식보다 우월한 계시의 한 '형식'으로 보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을 하시는 분(번역어로는

사건을 통한 계시(13장)에서도 중심이고, 성부를 가장 잘 계시하는 분(42장)이라고 덧붙입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 자신이 성경의 말이나 문장보다 권위가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프레임은 이 판단을 거절합니다. 그리스도가 최고 권위이신 것은 맞지만,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의 말보다 더 권위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외·순종·믿음을 그분의 말씀에도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말씀과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점에 주목하게 해 준 바르트에게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그의 확증은 옳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가짐을 부인한 것이 잘못입니다.

1. 그리스도는 계시의 '상위 형식'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
2. 말씀에 반응하는 것 =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것
3. “그리스도가 자기 말보다 높다”는 말은 성립 안 한다
4. 성경은 말씀에도 같은 경외·순종·믿음을 요구한다
5. 바르트의 확증은 받고, 그의 부정은 거절한다

> “우리는 그가 부정하는 것이 아닌 그가 확증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

일반계시 / 기록된 계시
자연과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시와, 성경처럼 글로 주신 구체적인 말씀.

인격적 말씀
하나님이 인격으로서 직접 하시는 말(문장과 내용을 가진 말)이다. 이 장에서는

자율(자율적 사고)
하나님 말씀에 묶이지 않고 인간 이성을 최종 판단자로 삼는 태도.

관점(규범·상황·실존)
같은 대상을 기준(규범), 상황(세상과 역사), 사람의 내면(실존)이라는 세 각도에서 보는 프레임의 방법. 세 개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같은 것을 비춘다.

명제
참이나 거짓을 따질 수 있는 사실 진술 문장(예: “예수는 다시 오신다”).

신정통주의
20세기 초·중반 바르트 등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에 반발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조했지만 성경 본문 자체를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보지는 않은 흐름.

말씀의 세 형식(바르트)
그리스도, 성경, 설교를 말씀의 세 모양으로 보고 위아래 서열을 둔 바르트의 구분.

페리코레시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하시며 완전히 교통하신다는 뜻의 말(상호내주).

기독론적
'그리스도에 관한' 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이라는 뜻.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자유주의의 이성·역사·감정론은 긍정한 것은 옳고, '자율'을 고집한 점이 틀렸습니다.

-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바르트의 확증은 성경적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말보다 권위가 높으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은 곧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믿음입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5편 · 계시를 뒤집은 현대신학 · 이성·역사·체험이 말씀 자리에 앉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